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합숙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먼지만 날리던 곳이 천지개벽 되었다고,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인민군대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이 공장로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합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현관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홀과 복도의 충고를 설정하고 녀성들의 취미에 맞게 벽색갈도 안온한것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합숙생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침실은 물론 도서실도 잘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목욕탕을 손색없이 건설했으며 식사실은 연회장같이 꾸렸고 주방에 갖추어놓은 설비들도 현대적이고 최신식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합숙생들이 휴식과 오락, 체육을 마음껏 할수 있게 꾸린 공원을 보시고 마치 무릉도원같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합숙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하다고 하시



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생전에 인민생활 문제와 직결된 이 공장을 그리도 중시하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합

숙을 보시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공장종업원들이 합숙을 로동자들의 궁전, 로동자들의 호텔이라고 부른다고, 어

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질 좋은 옷감을 안겨주기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각하며 더 많은 천을 생산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서 5.1절정축 로동자연회를 성대하게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인민군총정치국장이 연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건설을 통하여 인민군대가 당의 방침을 정확하게 관철하였다고,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건설자들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또다시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추운 겨울에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에서 덧집을 짓고 그안에서 건설을 진행하는 투쟁자료를 매일 보고받았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관철로 높뛰는 군인들의 심장을 흑한도 열구지 못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혁명적근정신과 일본새를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조선인민군 제96군부대, 제462군부대, 제101군부대, 제489군부대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대를 조선로동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회의에

서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이고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

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가 당군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에서 돌격대, 기수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자면 인민군대 정치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정치기관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군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과 조선인민군 제681군부대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서남해상의 주요적대상물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거리포병구분대의 지휘관들과 포병들이 불의에 기동할데 대한 명령을 받고 먼거리를 행군하여 낯선 지대에서 포사격을 진행하지만 명중포탄을 날릴 자신만만한 배심에 넘쳐있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격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포사격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주체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쌩이고쌩인 분노의 분출인듯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포신마다에서 시뵈건 불줄기들이 연해연방 뿜어지고 포탄들이 번개처럼 하늘을 헤가르며 날아갔다.

정확하고 무자비한 타격으로 하여 목표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삼시에 포연자욱한 불마당으로 변하는 모습이 지휘소의 영상표시장치에 현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탄들이 목표를 타격할 때마다 명중이라고, 정말 잘 맞는다고 하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포병들은 서로서로 열싸안고 멸적의 불도가니속에 잠긴 적들이 아우성치는 물결을 통쾌하게 그려보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포사격훈련이 잘되였다고, 장거리포병구분대 포병들이 건군절을 경축하는 축포를 쏘아 올리였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군절을 맞고보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

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고수하여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철옹성같이 사수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명포수들로 자라난 포병들이 포사격훈련에서 백발백중의 명중포성을 울림으로써 뜻깊은 건군절을 빛나게 장식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81군부대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포사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격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사격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찍어주신 위치로 기동하여 화력진지를 차지한 구분대는 포사격을 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사격훈련을

주의깊게 보시고 구분대가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산악극능력을 강화하고 기동전개시장을 단축하며 전투사격속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잘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구분대의 싸움준비가 잘되지 않았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주체적인 포병무력은 우리 인민군대의 화력타격의 기본력량이고 최고사령부의 작전전술적기기도도 결국에 가서는 명포수들로 자라난 포병들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진행한 포사격훈련이 잘되지 않은것은 훈련에서의 형식주의가 낳은 결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포병훈련에서 형식주의적이며 도식적인 훈련방식과 멧따기를 하는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명포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데 이것 구분대와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의 마음은 싸움마

당을 떠나있는것 같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쟁은 예고없이 일어나며 그에 대처하여 경사적인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어야 적들의 불의적인 침공을 즉시에 제압하고 작전과 전투에서 주도권을 쥔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구분대의 싸움준비에서 심각한 결함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부대당위원회가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당정치사업, 군인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반미대결전을 눈앞에 둔 지금 싸움준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는 오늘 못하면 래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